

외국어교수에서의 과제의 난도평가기준과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

박 창 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나갈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은 오늘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특히 외국어교육부문에서 언어지식전수일면에만 치우치던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언어지식과 함께 그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외국어교수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의 활용능력을 높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제들을 적극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활용능력을 높여줄수 있는 과제들을 설계하고 개발하자면 과제의 난도를 옳바로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다시말하여 과제의 난도를 해당 학생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옳바로 설정하여야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근본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있다.

과제의 난도를 옳게 설정하자면 과제의 난도를 평가할수 있는 기준과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모든 유형의 연습활동들은 일정한 사고활동을 통하여 진행되며 그러한 사고활동은 일정한 대상에 사고를 집중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와 의미에 주의를 돌리고 문제점을 포착하며 그것을 분석하고 추리하여 일정한 본질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사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언어적견지에서 과제의 난도는 어휘적 및 구조적복잡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수 있지만 인지적견지에서 과제의 난도는 일정한 사물현상의 본질이나 속성, 원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학생들의 사고활동의 질과 량 다시말하여 인지적부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지난 시기 인지적견지에서 과제의 난도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였다.

어느 한 연구사는 자기의 저서 《과제위주의 외국어교수》(“Task-based Language Instruction”)에서 과제의 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학생들이 과제가 담고있는 언어의 형태적측면에 인지적자원인 주의를 알맞게 돌리지 못하면 그들이 과제의 목적인 류창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복잡한 형태구조의 사용능력을 배양할수 없다고 하였다.

인지적견지에서 보면 과제의 난도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돌려야 할 주의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제일수록 쉬운 과제들보다

학생들이 그 수행을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데서 형태보다 의미를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따라서 과제의 난도가 높으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주의를 소모하게 되고 나머지주의를 언어의 형태적측면에 돌리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도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교원이 그들에게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를 연구할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어 언어습득과 활용에서 정확성과 류창성, 복잡한 형태구조사용능력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학생들이 과제가 담고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도 문장론과 어휘사용측면에서 정확성과 류창성, 복잡한 형태구조의 사용능력이 높아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과제를 수행할 때 이미 알고있는 내용을 담은 과제인것으로 하여 언어처리와 리해, 그 활용에서 정확성과 류창성, 복잡한 형태구조의 사용능력을 보여준다. 반대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우주과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과제가 담고있는 내용이 생소한것으로 하여 과제의 난도는 매우 높은것으로 인식되며 인지적부담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언어처리와 리해, 그 활용에서는 정확성과 류창성, 복잡한 형태구조의 사용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류창성과 정확성, 복잡한 형태구조사용능력의 측면에서 본 학생들의 과제수행은 인지적부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과제를 설계하고 작성하는데서 학생들의 인지적능력범위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도 과제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때문에 과제수행조건도 응당 과제의 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과제의 난도는 언어적복잡성과 인지적부담, 과제수행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과제의 난도를 평가하는 첫째 기준인 언어적복잡성은 과제의 언어적요구와 관련된 것이다.

실례로 구조적측면에서 복합시칭이나 종속관계, 내포관계와 같은 고급한 구조들을 보다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것을 요구하는 과제들의 난도가 더 높은것이다. 이것은 어휘수준이나 어휘분포밀도를 기준으로 과제의 난도를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제의 난도를 평가하는 둘째 기준인 인지적부담은 과제내용에 대한 인지적복잡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와 관련되어있다.

실례로 컴퓨터상에서 알아맞추기나 빈칸채우기과제를 수행하자면 그것을 수행하는 동안 상당한 주의를 소모해야 하며 반면에 간단한 이야기를 보거나 듣고 자기 말로 다시 풀어서 말하는 과제는 그만한 주의를 돌리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인지적부담이 적은것이다. 학생들은 시작과 내용 및 마감이 명백한 어떤 려행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 과제보다 여러가지 이야기줄거리들을 엮바꾸어가며 설명해야 하는 복잡한 정황의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많은 사고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더 큰 인지적부담을 느끼게 된다.

인지적부담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얼마만큼 소유하고있으며 교원이 제시해준 가상적인 인물들이나 정황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것을 요구하는 과제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흡수할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소유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과제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반영되어있는
가 하는것도 인지적부담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과제의 난도를 평가하는 세번째 기준인 과제수행조건은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는 시
간적조건과 과제수행자의 심리적조건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실례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 정해진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더 큰 압박감을 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듣기와 말하기와 같이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배양할것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시간정보처리나 여유시
간정보처리활동을 진행하거나 두가지 정보처리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기때문에 많
은 압박감을 받게 된다. 결국 이것은 학생들의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제의 난도평가기준과 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수 있다.

과제의 난도평가기준	평가기준구성요소
1. 언어적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규칙의 복잡성과 다양성 —어휘적복잡성과 다양성
2. 인지적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지식의 량 —과제에 대하여 알고있는 정도 —담화종류에 대하여 알고있는 정도 —분석능력 —정보조직능력 —주어진 정보의 명료성 —주어진 정보의 풍부성
3. 과제수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압박감 —과제의 분량 —런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수 —과제류형 —적극성 또는 피동성

우리는 학생들의 과제수행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과제의 난도를 바로 설정하고
과제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